

## 에스테리아(Esteria) 세계관

### <에스테리아(Esteria)>

- 에스테리아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이세계의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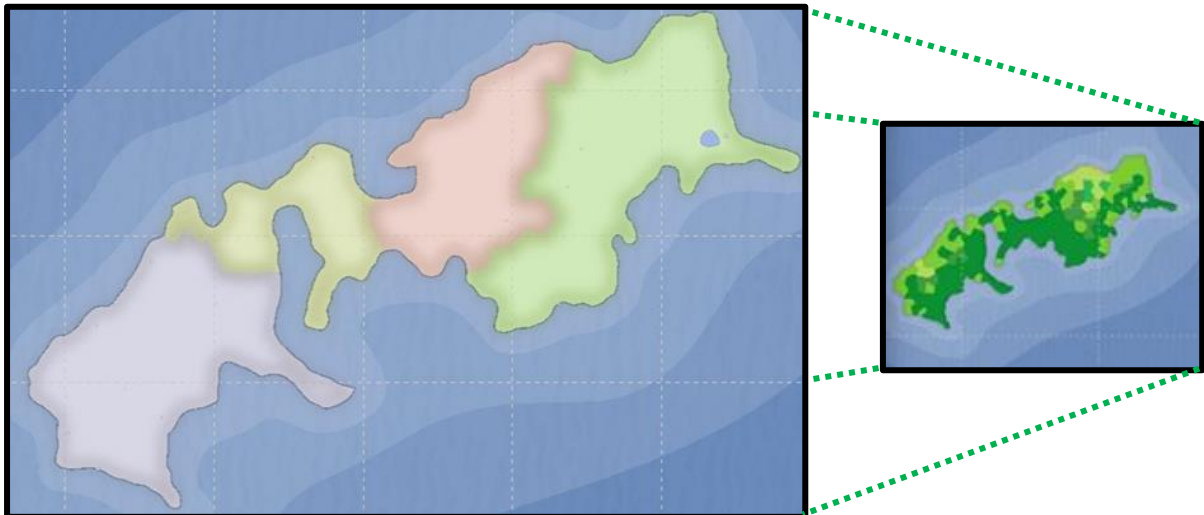
▼에스테리아 전체 지도



- 빛의 신이 4원소를 활용하여 창조한 세계이다.
- 현재 모르타스(어둠의 세력)에 의해 대부분이 타락한 상태이다.

### <세르발데(Serbalde) 대륙>

▼세르발데 대륙 지도



- 게임이 진행되는 대륙이다.
- 정령의 힘이 가장 풍부한 대륙이다.
- 4왕국이 존재하는 대륙이다.

### <기술적 배경>

▼에스테리아 한 도시



마법과 결합된 중세 기술 수준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세계 (일반적인 중세 판타지의 기술 수준)  
철이 주된 소재가 되며, 칼, 활,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숙련된 대마법사는 무기와 속성을 결합하여 강화된 무기를 만들어낸다.

### <문화적 배경>



▶ 4왕국 국기

4명의 원소의 정령은 인간을 창조할 때 불, 물, 바람, 대지의 능력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빛의 신과 속성 정령을 숭배하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왕국이 생겨났다. 왕국들의 국기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그려져 있다.

### <공간적&시간적 배경>



(전형적인 이세계 판타지물 배경 참조)

### <종교적 배경>



빛의 신은 4가지 원소로 에스테리아를 창조했다. 그 후 세계의 균형을 위해 각각의 원소를 담당하는 정령을 만들었다. 어둠의 신은 원소들의 힘을 탐내게 되었고 원소들의 힘을 빼앗기 위해 빛의 신과 싸우게 되었다.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의 전투에서 어둠의 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여파로 4속성의 정령들도 어둠의 영향을 받아 악으로 물들게 된다.